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편집인: 조봉호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산 0551-48-6264 (FAX: 0551-48-6265)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국민학교 급식시설 예산 촉구

해결방안 위한 공청회 열 예정

개정된 학교급식법(93.12.) 및 학교급식법시행령(94.6)의 발효로 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학부모에게 분담 시킴에 따라 학부모와 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하여 학교급식문제에 각각 관심을 표명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초등위원회, 전국지방자치 유관연구소협의회 준비모임은 연대회의를 갖고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95년과 96년 예산에서도 급식시설비 지원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 시설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을 철회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시설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 등이다.

이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연대회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 YMCA 앞에서 학부모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지금도 전국적으로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오는 10일 오후3시,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에서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공

청회도 갖는다.

공청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의 실태와 당면과제 (임선희 충북대교수), 학교급식조례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기우 인하대교수), 학교교육 급식현황과 교육부의 추진방향 (정현웅 교육부 학교보건과장),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학교급식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역할 (최순영 부천시의회의원), 학교급식 후원금 징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사례발표 (참교육학부모회 오성숙 정책실장)

강서남지회 임시총회 새로 일할 임원진 선출

그동안 간사체제(간사 이영미)로 운영되어 오던 강서남지회가 지난 10월 13일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당단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들은 이제까지 간사가 근무해 온 것처럼 강서남지회가 앞으로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1월부터는 임원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지부 사무실에 상근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신효종), 총무부장(최영란), 교육부장(여숙자), 문화부장(장은숙), 편집부장(이영미)



△두밀학교 살리기 작은음악회

지난 10월20일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가을밤에 경동교회 본당에서는 두밀리의 작은학교를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콘서트를 마련했다.

김광석, 윤선애, 노래마을, 마임배우 이두성, 나운선, 박상국, 박상철 등의 가수들과 두밀리 마을의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 농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려 이 땅에 참다운 교육을 세우고자 하는 5백여명의 관객들이 모인 멋진 가을콘서트였다. 두밀리마을에서 직접 가져온 두밀리 낙엽과 갈대, 그리고 가을꽃으로 꾸며진 무대며 함지박 가득 가져온 맛있는 밤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어우러지는 콘서트장은 모인 사람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500여만원이나 모아진 기금이 성과로 남았다. 지금도 1만원, 2만원 정성이 가득한 후원금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 이제 두밀리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빨리 되찾아 주고 싶고 그런 날까지 함께하는 도시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된다고 한다.

모여진 기금은 재판비용으로 일부 쓰일 것이고 학교를 되찾는 날까지 필요한 비용으로 쓰일것이다.

이번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은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교육부의 폐교조치에 학부모·학생이 주체적으로 우리학교를 지키려고 일어난 것에 의의가 있다. 또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교육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했던 것이 큰 의의라 하겠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두밀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마을회관이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날이 곧 올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주요기사

- 3면 국민학교 단체급식
- 4면 청소년 약물 중독 실태
- 5면 현장취재 : 이리, 부산지회
- 7면 미래의 유망직업

학생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가슴앓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책

마음의 벽을 트는 대화의 방법과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변화시키는 상담의 지혜를 소개.

- ① 상담의 기초이론
- ② 교사효율성 훈련
- ③ 감수성 훈련
- ④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교육상담소 지음/216쪽/4,500원

푸른나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116-3 전화 701-0657 719-9650 팩스 702-2013

논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글쓰기를 요구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학부모가 건네주는 책.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김종호 지음/228쪽/4,500원



글쓰기를 주저하거나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아이들 모두를 위하여 논설문·설명문에서 시, 소설, 춘극대본까지 다양한 글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인 글쓰기 안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일기쓰기/모듬일기 쓰기/자기 신문 만들기/독후감 쓰기/설명하는 글쓰기/신문 읽고 글쓰기/주장하는 글쓰기/기행문 쓰기/사랑의 해결사/이야기 나누기/시와 친해지기/공동으로 시쓰기/소설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소설 주인공과 상담하는 글쓰기/이야기 바꿔 쓰기/소설 이어 쓰기/공동으로 소설 쓰기/영상극 만들기/춘극 대본 만들기/독서퀴즈대회.

사설

철저한 기초 교육과 보충학습 제공해야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생 50여만명을 조사한 결과, 약 9천명이 한글을 못읽거나 기본적인 덧셈·뺄셈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관심있게 지켜보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알다시피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입학이전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유치원 등에서, 또는 사설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한글을 깨우치고 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글을 깨우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후의 학습을 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아교육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글을 깨우치고 셈을 배우도록 몰아넣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학교교육은 학부모들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는 커녕, 이를 따라감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한글을 깨우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한글 및 셈에 대한 철저한 기초교육과 반복학습을 계속하지 않고 학습진도를 진행함으로써 입학 전에 유치원 등에서 이를 준비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일찍부터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학교교육은 무엇보다 모든 어린이들을 감싸 안고 함께 나아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뒤떨어지는 어린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혀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낙오자로 머물게 만든다.

중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제경쟁력강화를 이유로 최근 조기영어교육 붐이 급속도로 퍼져 가기 시작했고 따라서 중학교 입학이전에 이미 중1 영어교과서 과정을 마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국민학교 시절에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면 중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자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보통의 어린이가 한글도 제대로 못읽고 셈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저능아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올해 들어 교육의 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의 양성으로 설정되면서 우리 교육이 우수한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무수히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습단계에 따라 적절한 학습지진아에 대한 보충학습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학습지진아를 양산하고 있다는 반성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교육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초교육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학습지진아에 대한 체계적 보충학습시간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과정을 시급히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 학습지진아 실태조사

한글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 많아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4일간 서울 시내 347개교에 재학중인 전체 중학생 51만 6천 70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진아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 중학생의 1.7%가 국민학교 2,3학년 과정의 기초 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0.08% (440명)로 나타났고 한글을 읽을 수 있으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은 0.54% (2천 794명)에 달했다. 또 덧셈, 뺄셈을 못하는 학생이 0.22% (1천 169명), 구구단을 이용한 초보적인 곱셈, 나눗셈까지만 할 수 있는 학생이 0.88% (4천 565명)로 각각 조사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 중학교 및 교육청에 이들 학습 지진아들에 대한 지도 방안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예산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하루 '공부없는 날'로

초중고 내년부터, 김교육부장관 밝혀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내년부터 인성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일선 초중고에서 평일 중 하루를 '공부없는 날'로 지정, 체험학습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공부없는 날 오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동행, 박물관을 견학하거나 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느 요일을 공부없는 날로 지정할 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영·수 중심 본고사 폐지 요구

사립중고교장회 정기총회에서 건의

대한 사립중고교장회는 지난 21일 대전 과학기술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엄규백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에도 우리의 현실은 사학에 다니는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 학생에게도 기본공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 읽기 싫은 이유 "독후감" 때문

많은 어린이들이 책 읽기를 가장 기피하는 큰 이유로 「독후감 쓰기」를 꼽았다. 청주석교국교 오병익교사(43)가 이 학교 4,5,6학년 8백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에 대한 「어린이 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어린이의 73%인 6백53명이 독서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독후감 쓰기를 꼽았다. 또

13% (1백16명)는 책쪽수의 많음, 8.2%인 73명은 부모님의 강요, 6% (53명)는 책 선택의 어려움을 꼽았다.

독서를 게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3% (4백74명)가 TV시청, 40% (3백 58명)가 학원수강, 4% (36명)가 학교과제물 과다, 3% (27명)가 오락실 출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서울 중고 수업료 14% 인상

95학년도 서울시내 중고교 수업료가 올해보다 평균 13.8% 인상되고 신입생 입학금 역시 평균 14.1%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분기당 8만5천2백원인 중학교 수업료를 9만6천3백원으로, 16만4백원인 고교 수업료를 18만3천6백원으로 각각 13%, 14.5%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고교 신입생입학금도 중학교 13.3%, 고교 14.9%를 각각 올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인상폭은 인건비, 공사립학교의 현장교육비, 고교교육체계 개편비 등에 따른 것이나 올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해 학부모 수업료 부담 증가와 함께 타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은일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빵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큼지막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빵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이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신국판 / 200쪽
값 5,000원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근간>
-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까**
이혜련·김정은·이기연 지음 <근간>
- 영어 적기 교육
⑧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향 지음 <근간>

여성사

주소 :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 324-1885 / 팩스 : 336-1639

☐국민학교 단체급식

시설 마련 위한 후원회비 모금 발생 95년도 교육부 시설비 지원 예산 누락

97년까지 모든 학교에 단체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 이후 올해 급식학교로 지정된 국민학교들이 시설공사에 따른 교육청 지원금 외에 학부모들만을 참여시키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기부금 목표액을 채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학교로부터 학교급식시설 찬조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도대체 얼마나 내면 학교급식이 가능할까 시설비만 해도 1억5천만원 내지 2억여원이 든다는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은 국가가 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남(중서부지회)씨는 1학기 때 학교급식시설 찬조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우선 아이에게 급식이 된다는 사실에 반가워 했었다 며 그러나 2억여원 가까이 되는 시설비를 모두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려는 계획 아래 찬조금 단위를 최소 5만원으로 하여 30여만 원까지 내도록 심리적으 강요하는 등 학부모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고 학교급식후원회도 어떻게 결성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 분당의 김인선회원도 김영삼 대통령이 97년까지 국민학교의 학교급식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서 국민학교 급식시설예산을 완전히 누락시킨 것은 정부가 아직도 학부모를 부족한 교육재정의 지원자

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재정정책을 비판했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본회는 여성단체연합,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전교조 초등지회, 전국 지방자치관련 연구소연합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95년도 학교급식시설 예산이 누락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현재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0일에는 학교급식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공개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본회는 이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시설 찬조금 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성숙 정책실장〉



더구나 94년도에는 교육부 예산에서 학교급식시설 설비 지원 비용으로 200억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급식비용을 지출하였으나 95년도 교육부 예산에서는 학교급식시설비등의 지원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데 이 많은 돈을 모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급식은 찬성하지만 의무교육인 국민학교에서 이처럼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찬조금이 웬말이나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던 까닭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본회는 이에 대해 의무교육인

“감초들의 이야기” 발행 학생 징계처분 본회, 동일여고에 항의 서한 보내

“감초들의 이야기”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및 퇴학을 당한 동일여고생 3명이 당산동 학부모 사무실을 찾아 왔다.

청소년 단체 샘 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동일학원(학원장 김동섭) 동일여고(교장 김제원)가 지난 18일 학생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을 걱정하는 단체인 본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학교측은 원래 학생들을 샘 관련문제로 조사한다고 했으나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처음부터 관심있었던 것은 [감초 이야기]라는 학교측의 허가를 받지않은 학교신문을 만든 학생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감초 이야기]에는 중징계 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영여회화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선생님에 대한 의문, 주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같은 재단의 동일여상이 학생선발 때 주간만으로 학생들을 뽑고 감사에서 지적되자 주간반을 떼어내어 야간반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고발, 교실창문에 못 박는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 등의 학교 비리 고발과 고등학생으로서 함께 생각해볼만한 사회문제, 4.19등 뜻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글

등이 바로 “감초들의 이야기”의 내용이다.

더구나 징계학생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교직을 어겼으니 반성문이라도 써서 자퇴처분을 받아야 다른 학교에라도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입장은 더욱 안타깝다.

본회에서는 이에 동일여고에 학생들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띄우고 하루빨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감초들의 이야기”를 발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퇴학, 정학처분을 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될대로 위축된 고교학생들의 자율활동이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학생들의 창창한 앞날을 고려하여 이번 징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동일여고 당국이 이번 학생들에 대한 퇴학조치 및 자퇴요구를 강화할 경우, 본회는 다른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부당하게 징계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명희 관동지회장〉

「어린이 도서연구회」 어린이와 책 문화행사 “우리 아이에게 우리 책을”

어린이도서연구회(회장 곽정란)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울·광명, 부평, 시흥 안동 등 전국을 돌며 「어린이와 책」문화행사를 갖는다.

어린이들에게 국내작가가 쓴 책들을 읽도록 하는 외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 더불어 학부모 모임의 활성화도 꾀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어린 도서연구회가 선정한 10명의 국내동화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방정환:「사랑의 선물 1, 2」(신구미디어)
- ▲마해송:「사슴과 사냥개」(창작과 비평사)
- ▲이원수:「갓난 송아지」(삼성미디어) 「꼬마옥이」 「해와 같이 달과같이」(창작과 비평사)
- ▲이주홍:「피리부는 소년」(산하) 「못나도 울엄마」 「사랑하는 악마」(창작과 비평사)
- ▲권정생:「짚구네 고추밭소동」(웅진출판)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산하) 「몽실언니」 「점득이네」(창작과 비평사)
- ▲이현주:「아기도깨비와 오토제국」(웅진출판), 「날개 달린 아저씨」(창작과 비평사)
- ▲손춘익:「새를 날려 보내는 아저씨」 「어린 또똥이」(창작과 비평사)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웅진출판)
- ▲윤기현:「해가 뜨지 않는 마을」 「서울로 간 허수아비」(산하)
- ▲장문식:「누나와 징검다리」(창작과 비평사), 도둑마울(산하)
- ▲이금이:「가슴으로 크는 나무」(계몽사) 「밤티마를 큰돌이네」(대교출판) 「영구랑 흑구랑」(현암사)

학부모 만평



◇ 청소년의 약물 중독 실태

약물 중독 전문 치료센터 건립 시급

일부 의약품 청소년 환각 놀음에 오용

청소년의 약물복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해가 갈수록 약물을 복용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약물 복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책없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일 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그들을 약물 중독에서 구해낼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호기심이 많고 이성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한번 약물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청소년 범죄 약물과 연관

이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은 얘기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약물은 담배와 술과는 달리 복용초기 단계가 지나면 근본적인 치료는 물론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청소년시기에 약물에 의한 환각을 맛보게 되면 급속하게 그 속에 빠져들고 시간이 갈수록 강도 높은 자극을 바라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상태에 이르고 그 때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서 혼자 벗어나기는 어렵다. 일단 중독이 되면 그 뒤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연결된 줄처럼 따라나온다.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약물복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환각상태에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흉폭한 일도 벌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약물중독에 이르는 길은 두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 시험에 쫓겨서 각성제를 복용하다가 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품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동네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나 형으로부터 흡연과 음주를 배우고 카페나 유흥장을 같이 다니며 본드나 부탄가스의 흡입에까지 이르게 된다.

시작하는 것은 다르지만 두가지의 경우 모두 밑바닥에는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깔려있다.

현실도피 수단으로 약물복용

호기심으로 시작한 약물복용이 차츰 가정불화나 성적부진,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이

용된다. 한국약물 남용 연구소가 11개지역 남녀 고등학교 3학년생 6천2백40명(남 2천9백50명, 여 3천2백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음주·흡연, 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대마, 코카인, 필로폰, 마약, 환각제, 항히스타민제 등 14가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와 특이한 점은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진해제, 진통제 등의 약품이 청소년들의 환각 놀음에 오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물 복용의 평균 연령은 중학교 시절인 13세~15세이며 최저 연령으로 8세에 본드를 시작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복용하는 약물 종류로는

본드흡입은 87.4%로 가장 높았고 부탄가스흡입(56%) 약품 복용(45.8%) 대마초(32%) 신나 흡입 25.7% 히로뽕(12.3%) 코카인, 헤로인등의 마약류(2.4%) 순으로 밝혀졌다.

약물 복용의 순서로는 담배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술로 이어지며 본드, 부탄가스, 신나, 대마초로 발전한다.

간·신장·뇌세포에 치명적 손상

호기심으로 시작한 약물복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면 행동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다. 상담교사들에 의하면 약물복용 학생은 학교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줄고 같이 활동하기를 싫어 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약물중독의 증세는

○기분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초조해하거나 우울해 할때

○행동이 느리고 말을 더듬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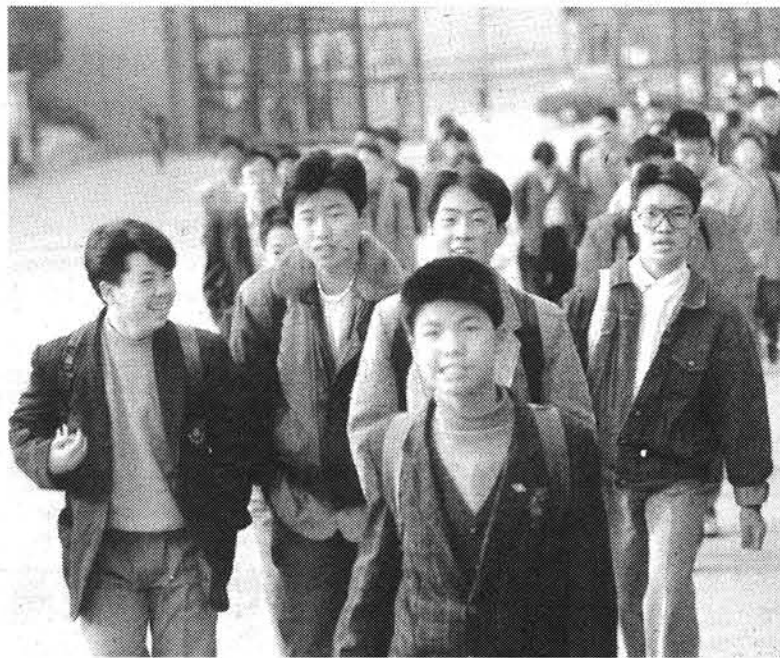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때

○기민함이나 민첩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때

○친구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친구관계가 변할때로 이런 때는 세심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상습적인 약물복용은 간·신장·뇌등의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된다. 약물의 폐해는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복용자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본드, 신나, 부탄가스:본드나 신나의 주성분은 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인체의 지방대사를 파괴하며 골수·뇌·간·신장등에 심한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청소년의 밝은 미소, 약물로부터 보호되어야
(이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특히 혼자 숨어서 본드를 흡입할 경우 질식사하거나 환각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다.

부탄가스를 마시면 폐에 가스가 찰 경우 질식사 할 수 있으며 폭발의 위험이 있다. 계속 흡입할 경우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뇌세포나 신경계가 파괴된다.

○진정제등 약물복용:습관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금단 증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다량 복용할 경우 뇌의 기능을 억제하고, 호흡기능 작용을 억제하여 사망에 이를수 있다.

○코카인, 히로뽕: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두번의 주사에도 중독이 되며 매주 2~3회씩 2, 3개월 계속되면 중독된다. 중독 증세로는 환시, 환청증상이 나타나며 피해망상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한다. 코카인은 혈압상승, 위액분비물 증가, 정신기능을 향진시켜 감각이 예민해지며 과량 복용하면 초조감이 생긴다.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구토, 불안등을 유발하며 동공 확대,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약물 복용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원인은 그들이 주위에서 약물을 구하는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배경이 된다. 본드나 부탄가스는 동네 구멍가게나 문방구에서 약품류는 약국에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있다. 법적인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모와 교사에게 약물 교육 해야

약물의 오용이나 남용은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학교 사회가 함께 예방지도에 나서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친구 관계, 고민거리등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자신이 청소년이 약물을 가까이 하게 되는 원인배경과 약물의 폐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성검사 관심여인 관찰, 상담등을 통해 먼저 약물 복용학생을 파악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이 약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수업 시간이나 특별 활동시간에 약물복용의 무서움을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때가 약물복용의 고비가 되는 시기라고 하며 인격 형성

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이때 부모나 교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적 상담과 치료 필요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이 갖가지 해독과 심한 경우 죽음에 까지 이르는 약물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복용사실이 밝혀지면 관리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계속 숨기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약물중독사실을 밝히고 소년원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는 약물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정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재활을 바라기는 어렵다. 약물 중독의 최초 발견자인 가족이나 교사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다. 발견된 후에 병원으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병원이라고 더 나은것도 아니다. 종합병원의 정신과나 개인 정신과병원에도 청소년 약물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시바빠 최소한 6대 도시에 만이라도 약물중독 전문 치료 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과 퇴원후 추적치료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약물 중독된 청소년들을 환각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환각환자로 보고 처벌보다는 치료에 힘써야 한다. 가정에서는 '내 아이가 설마'하는 생각을 버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특히 성적부진으로 인해 좌절에 빠지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이 약물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찾아내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약품을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의 빗나간 상흔과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사회 풍조 속에서 이런 약물이 청소년의 손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들이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해순 기자)

현 장 취 제

전북 도교육청 학교 안전공제회비 초·중고생에 강제 징수 반발

부산 고신대 신입생 입학 자격 기독교인으로 제한 말썽

전라북도 도·교육청이 학교 안전공제회비금 확충 명목으로 회원도 아닌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도록 지시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지난 7월 2일 도내 교육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통해 안전 공제회비 기금 확충 명목으로 6억원의 기금 조성을 지시한 뒤 국민학생 1인당 1천원, 초·중고등학교 1인당 2천원씩의 돈을 걷도록 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학생의 피해

지회에서는 지난 20일 이리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생들로부터의 학교안전공제회비 강제 징수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또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비 징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고 회비징수를 즉시 중단할 것과 걷어들인 회비는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감으로부터 “나는 안전공제회의 정관에 대하여는 아는바도 없고,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도 교육청에 가 알아 보아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시종일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이에 분노한 회원들은 24일 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다시 도 교육청

학부모 무시하는 교육 관료들의 태도에 분노

해구제를 목적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사단법인체다. 각급 학교장을 일반회원으로, 시·도 교육위원 및 시·군 교육청과장급 이상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도내 모든 학교가 가입되어 있다.

이 안전공제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93년까지 교장 6만원, 교감 3만원, 교사 1만5천원 씩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회원들로부터 회비 징수는 하지 않으면서 회원도 아닌 학생들로부터 회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 안전공제회 정관 제11조 2항 및 제12조 1항에 따르면 회비는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안전공제회 기금은 학생들이 수집해 온 폐품, 폐휴지 및 육성회 지원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현금 징수는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교육 학부모회 이리

을 방문하여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교육감은 만날 수도 없었고 중등 교육국장과 면담과정에서 학부모들만의 요구로는 징수한 회비를 되돌려줄 수 없고 회비 징수를 중단할 의사도 없으니 굳이 길을 찾는다면 교육위원회의 이해아래 행해진 일이니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면 따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교육의 뚜렷한 주체인 학부모들의 권리가 교육관료에 의해 또한 제도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 전북지역 회원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에 이러한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이땅의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양민숙 이리지회)

해마다 이맘때쯤만 되면 대학입시를 앞두고 언제나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다. 이러한 때에 “신입생 입학자격 제한”을 두고 학내 진통을 겪는 학교가 있다.

부산의 고신대다. 이 학교는 91년부터 시작된 신학과와 종교학과 무관한 학과의 신입생의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했고 지난해부터는 이를 의예과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입학자격 또한 기독교인 중에서도 ‘학습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교회 출석 6개월 이상으로 교리문답을 이수한 이른바 학습신자나 세례교인)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고신대 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측과 학교측이

신입생 입학 자격을 놓고 많은 논란과 줄다리기를 하였으며 교육부로

부터는 종교와 무관한 학과에 대한 응시 제한을 철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의 주장은 “예장 고신총회의 직영 교육기관으로써 신앙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학이념에 따른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권이라고 얘기한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교육부나 학생들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균등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신입생의 자격 제한을 하려고 하는 고신대등 3개 대학에 대해 이미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고신대 사태는 어떠한 의미에서건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가지는 중요성에서 볼때 종교적 이유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 평등권에 위

배될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크게 벗어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교육분야에서만은 평등을 원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신체적, 성별 등 여타의 차이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역할과 목적에도 어긋난다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권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학의 자율권이 일정한 계층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율이라 할 수 있을까? 사학의 자율성은 오히려 학교가 가지는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에 어긋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학이라도 학교는 국민

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즉 학교는

특정한 계층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내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은 학생선발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 양질의 교육내용과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이 잘못 행사되어 그것이 교육의 평등권에 배치된다면 사학의 자율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신대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종교로 인한 입학 자격 제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 평등권 문제가 깔려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여타의 차이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윤선희 부산)

사학의 자율권 넘어선 교육 평등권에 위배 돼

교육 모니터

모임

— TV 어린이 만화영화의 문제점 —

여과시키지 않은 폭력장면 보여줘

요즈음의 어린이 만화영화에는 많은 부분이 정의와 평화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른들은 그에 대한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만화들을 살펴 보자.

SBS의 「롤러왕 파워킹」은 세계를 무사히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 현란스러운 음악과 배경으로 파워킹의 활약을 보여준다. 검은 문어형체의 세계정복 계획은 번번히 무산되지만 주제의식이 전혀 없고 만화로서의 재미조차 없다.

「쾌걸 조로」역시 스페인 군대 횡포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면을 쓰고 나타나 도움을 주는 멋진 사나이로 보여주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비폭력적인 폭력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MBC의 「핑크팬더」의 경우는 톰과 제리처럼 주된 내용없이 빠른 속도의 화면 전개와 무한한 폭력을 여과시키지 않은 채로 보여 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폭력은 아이들에게 일상 생활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가슴

깊숙한 곳까지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만든다.

비폭력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KBS의 「꽃의 천사 루루」는 아름다운 무지개꽃을 찾아다니며 일어난 일을 소재로 전개된다. 마지막에 꽃씨를 뿌린 후 꽃이 피면 꽃말을 전해주는 것으로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 전형적인 수입만화로 루루의 노랑머리와 날씬한 몸매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MBC의 「개구장이 데니스」는

수입만화지만 순박함과 우정, 장난스러움을 보여주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나은 내용이다. 그러나 영어가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SBS의 「꼬꼬리코」는 현재 방영되는 만화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주었다. 친구와의 우정, 정의, 순박함과 희망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알려지고 있다. 꼬꼬리코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의 해결방법은 어른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기발한 생각들로 어른까지도 만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밧드의 모험」, 「플란더즈의 개」처럼 보다 순박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 꿈과 희망을 주며 불의에 대항하는 진정한 용기와 참된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만화를 원한다.

아울러 TV만화에 아이들을 지나치게 방치해두는 것은 아닌지, 또 만화영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 시간대를 거의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만화가 우리의 문화정서에 맞지 않는 수입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황규영 정리)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기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뽕 맞은 아이

제주도에 시댁을 따라 살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다.

그녀는 크고 작은 인생 상담을 오직 육지의 나에게 편지로 보내온다. 이번에 보내온 편지는 드디어 꿈꿨던 상처가 터지려고 하는 위기였다. 시아버님은 이름있는 난 재배자로 무형 문화재가 되신 분이다.

열살 된 그녀 아들이 이 시아버님의 난 온실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뽕을 맞은 것이다. 아이도 충격, 이 엄마도 충격... 을 넘어 서운하고 속상하고 급기야 분노의 심정이 되어 편지가 왔다.

'난도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물며 손자보다 난이 그렇게 중요한 것 일까요?'로 시작된 편지는, 어린 자식이 할아버지께 뽕을 맞고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참고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다는 구구절절의 사연이었다.

자. 우선 나의 답장은 어떠했을까. 어찌 그런 인생 상담에 사실상 정답이 있을 것인가. 또한 아무리 낱알이 떨어 놓은 사연이라 한들 어차피 지엽적인 것이지, 장편 드라마와 같은 삶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역사를 제쳐 두고 지금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어찌 각자의 인생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선배라는게 무엇인가. 나는 일단 이 후배의 비관적인 회의를 치료해 주어야 될것 같았다.

어차피 삶이란 이현령 비현령.

'넌 네가 지닌 너만의 축복된 삶은 다 잊어버린것 같구나.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 밖을 나가면 억울하고 분하고 딱한 일 천지인데,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뽕을 때린 것은, 설사 목숨을 내 놓으라 한들 부모와 자식의 일인데 어찌냐. 그리고 훗 아이의 실수도 생각해 보고 뽕 때린 할아버지의 심정도 생각해, 첫째는 아이에게 그런 기분을 전할 일이다. 할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실수를 인식시켜 줄 것. 그래야만 아이의 충격이나 분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너만이 지닌 행복한 점들을 생각하기 바란다' 대충 이런 답장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정 반대였다. 화가나고 -제주도에 갔을때 귀엽게 잘 자란 3학년짜리 후배의 아들이 생각났다. 어찌자고 그런 손자의 뽕을 때린단 말인가.

컴퓨터 워드를 사용하는 내 곁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 보다가 '누가 뽕 맞았어?'로 시작되어 우리는 결국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곧잘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할아버지뎐 뽕을 때리기로소니... 어찌냐. (내가 어른의 입장을 취한다)

-아이가 몇살인데... (아들의 질문은 '검사' 같다)

-3학년? 2학년? 그 정도야

-어리잖아. 왜 뽕을 때려. 어리다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큰놈은 괜찮지. 지 잘못을 알던가 모르던가 따지든가 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힘없는 놈은 정말 억울하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 때도 많아... 어른들도 사실은 감정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단니까. 우리는 뭐 어리다고 감정없나?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밤 치울때마다 딱지 다 버렸잖아. 그때 정말 나도 어른이라면 엄마를 쥐어 찔렀을거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데 자기들만 패고 우리는 뭐야

끝에가서는 농담이 되고 우리는 점차 어른이라는 동물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흥보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재미 있었다. 지금은 성장했지만 옛그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들로부터 어린이의 심리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것.

'문제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너무 버릇없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답식의 정답이 해당 될 수 없는 여러 케이스를 핑계로 나는 다시 할아버지 (어른)의 입장을 두둔해 보았다.

다시 아들의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 뽕맞은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는거지' (어머! 이놈이 언제 이런 오기가 있었던가)

'그렇까. 엄마도 어렸을 적에 학대받고 자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분노가 꼭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 말 다음에 아들이 한 말이 나에게 충격이 된다.

'그게 아니지. 그때 엄마가 받은 상처가 잠재되어 있는 거라구.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오늘을 매일 같이 누가 분

노를 갖고 있는게 보이냐... 가령 빨리 포기한다든가 남을 두려워 한다든가 하는 성격이 형성되는거지. 엄마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매번 참아 버리는 것... 다 용기가 꺾여서야'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사악해지는 경우도 있겠고?)

야. 이놈 봐라.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동심리 따위를 어른들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갑자기 우스워지면서 아들이야말로 소중한 어린이의 심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계속 말해봐'

'응.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인가. 거긴 어린이 학대죄라는게 있잖아. 그건 정말 합리적인 거야. 부모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 힘 없어서 그걸 맞고 있는 아이는 뭐야. 당연히 법이 보호해 줘야지'

아들은 온화하기 이를데 없이, 농담을 섞어 가며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피를 받아서 그래, 임마'

나도 가볍게 응수하는 것으로 그 토론(?)은 끝이 났지만...

동양적인 권위의 상징인 체벌의 가치를 운운하는 것이 나는 참 못마땅하다. 체벌로 다스려야 한다면 벌써 실패한 교육이 아닐까. 이것도 정답이 있거나 흑백 논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 특이한 악동이 아니고서야 - 체벌이란, 벌써 실패한 자의 폭력이 아닐까 싶다.

(「뽕정엄마 백점일기」의 작가 조은일)

강서남지회장 신 효종씨

인터뷰

“회원 확보 무엇보다 시급해요”

학부모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전국에서 열심히 일해온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임시 총회에서 강서남지회의 회장을 맡게 된 신 효종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강서남지회 3대 신임회장이 된 신효종씨를 만났다. 강서남지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간사체제로 운영돼 오다가 이제서야 새로운 회장을 맞게 된 것.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미국생활 8년, 아이들에게 한국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큰 아이가 단체기합으로 체벌을 당하고 온 날 신효종씨는 아동학대 고발센터, 성폭력센터 등의 문을 두드리다 참교육학부모회를 처음 알게 됐다.

「상당히 합리적인 교육시설과 제도

에서 교육시키다 한국에 오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선진교육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완전히 자원봉사체제로 이상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신선했어요」

학부모회를 알게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며 특히 학부모신문에 난 「학부모

회가 바라는 학교자문위원회 기사」를 보고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다고. 신효종씨는 그래서 지난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학부모회에 참여했고 일찍이 회장감(?)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신효종 신임회장은 우리 학부모회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이고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금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더 힘이 있는 단체가 되려면 전 국민이 학부모라는 관점에서 볼때 회원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 일간지나 벼룩시장 같은 곳에 월례회나 강좌 광고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강서남지회의 올해 사업으로는 PET강좌를 꼽을 수 있어요. 현재 2기 1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1기도 8주 교육을 받은 후 후속모임을 갖고 있지요.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고 미래의 세상을 아이에게 내주기 위해 PET는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돼요. 현 시대에 알맞

는 부모, 우리가 요구하는 참교육과도 통하는 내용이지요.」

PET교육은 내년도도 강서남지회의 중요사업이 될 거라고.

신임회장으로서 회원과 더불어 앞으로 해나갈 내년 1년의 사업으로는 자녀를 모아서 글모음집을 내는 것, 또 하나는 환경을 위한 전 회원의 가족소풍을 계획중이다.

미국에서 돌아와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중2, 고1이 된 두 아이에게 대부분의 한국부모들이 갖는 조급증을 버리려 노력했고 아이들 나름대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 서로 다른 교육환경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됐다고 말하는 신효종씨.

믿음직하고 분명한 목소리에서 강서남지회의 보다 밝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다.

(조봉호 기자)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③

누구의 문제인가 판단하는 것이 대화법의 기초 '부모는 해결사 아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성장해서 주체적인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슈퍼맨일 수 있습니다. 영아나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는 만능 해결사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해결해 주고 온갖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머니 품에서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어려서부터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준 아이는 커서 어머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자녀의 이런 능력을 가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제해결을 통해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맛보지 못한 아이는 자연히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성격이 되고

됩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녀의 만능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 자신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란 존재는 단지 자녀가 스

도움을 청해 부모가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자신의 문제로 끌어 안게 되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화법은 이 문제 가리기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소유를 가릴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문을 읽고 누구의 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1.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늦장을 부린다.

2. 딸 아이가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이 된다

3. 국민학교 2학년 아들이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고 부모방에서 자려고 한다.

4. 중학교 1학년 딸이 남자 친구가 없다고 우울해 한다.

5.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

답: 자녀문제 (2, 4) 부모문제 (1, 3, 5)

〈이정진 PET 강사〉

미래의 유망직업 (5)

텔레마케팅 요원

텔레마케팅이란 TELE-COMMUNICATION과 MARKET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한 상업기법을 말한다. 즉 교통체증과 주차난, 인건비의 상승등으로 영업사원을 이용한 판매 촉진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는 영업여건 속에서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 즉 텔레마케팅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만 신경을 썼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었고 매스미디어 광고 만으로 강력한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고객을 세분화하여 그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6년 미국기업의 총 매출액중 텔레마케팅을 이용하여 창출된 금액이 일천억 달러가 넘었고 9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에 필요한 텔레마케팅 요원은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텔레마케팅을 도입한 곳은 86년 미국계 시티은행이었다. 시티은행은 이 기법을 도입해 일년 반 만에 총 수신고의 30%를 유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뒤이어 동화은행, 한국타이어, 삼성전자들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텔레마케팅 요원은 단순히 전화받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전화관측, 기업의 시장조사, 정치홍보, 전화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판매권유, 관측물에 대한 추가설명, 고객의 제품상담, 크레임접수 등 수신업무까지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 텔레마케팅 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유일한 교육기관인 여성자원금고에는 약 6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Tele-communication 전문 요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보수는 그리 높은 편이 못된다. 각 회사마다 자체 급여체계에 따른 고정월급이 있고, 기본급에 수당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초임은 월 40-50만원 선이다. 시티은행의 경우 3년 경력의 전문 텔레마케터가 월 100만원 선이다.

텔레마케팅은 시장개방과 함께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전화비용만으로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재고에 도움을 주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텔레마케터의 수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로 미루어 볼때 텔레마케터는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텔레마케터는 목소리만으로 진행되는 업무특성상, 정확한 발음능력과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청취력이 필요하다. 기업체에서 여성들을 고용할 때 요구하는 조건인 외모나 결혼여부, 연령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 정도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 교육으로는 여성자원금고에서 '91. 11월부터 실시해온 통신요원 교육이 있으며 여러회사에서는 기존의 사원을 재교육시켜 텔레마케팅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성자원금고의 전화번호는 701-3966-7번이다.

〈배명희 기자〉

공고문

1. 93년도 입시에서 고신대학 의예과를 지원하여 불합격한 입시생이나 학부모를 찾습니다. (부당한 면접점수(44점)로 인하여 불합격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2. 94년도 입시에서 고신대학 의예과를 입시 자격 제한때문에 지원하지 못한 입시생이나 학부모를 찾습니다. (기독교 신급 학습이상으로 제한한것 때문에 자격이 안되어서 지원하지 못하신 분)
3. 올해(95년도 입시), 고신대학교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나, 기독교 신급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수 없는 입시생이나 학부모를 찾습니다.

*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당한 입시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걸 예정이오니 변호사 비용및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책임 지겠습니다.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의학부 총학생회(602-030)

전 화: (051)240-6455

우리말 유래 사전



박일환 역음, 이강로(前단국대 교수/한글학회 이사), 남기삼(연세대 교수) 감수 / 값 6,000원

판에 박다: 아주 똑같다. 천연일물적이다.
▶ 떡이나 다식(茶食) 같은 과자를 만들 때 나무로 떡판이나 다식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료를 넣은 다음에 박아 내면 모양이 한결같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틀에 박다' 또한 같은 이치로 만들어진 말이다.

“아빠하고 나하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대요.
'판에 박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시치미 떼지 말라고 할 때 '시치미'가 무슨 뜻이에요?”

“.....”

“엄마, 나보고 벽창우 같은 녀석이래요. '벽창우'는 또 무슨 말이에요?”

“.....”

아이들이 자꾸만 이것저것을 물어오는데

글쎄,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 유래 사전』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응, 그 말은 말이지.....”

학부모회 11월 행사 안내

월례회

서울 강서남지회

- 날짜: 11월 8일 10시 30분
- 주제: 현대 여성과 사회(오숙희)
- 장소: 삼성출판 세미나실
- 문의: 634-4359

서울 관동지회

- 날짜: 11월 23일
- 주제: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장소: 한국 청소년 학회 세미나실
- 강사: 나정 (교육개발원)
- 문의: 634-4359

중서부 지회

- 날짜: 11월 15일 10시 30분
- 주제: 우리 아이 적성을 알고 싶어요
- 강사: 양종국 (한국 적성 연구소 실장)
- 장소: 학부모 사무실
- 문의: 634-4.59

부산지부

- "다대지역 어린이 토요일교실"
- 날짜: 매주 토요일 2시~4시
- 내용: 풍물감수 (기본장단악기)
- 대상: 국민학교 1~6학년 (사하구 지역 거주자)
- 문의: (051) 247-1795

인천지부

- "하반기 정기총회"
- 날짜: 11월 24일 10시 30분
- 안건: ① 95년 임원선출
② 95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③ 상수도 불소화 작업 연대 사업에 대하여
- 문의: (032) 525-8342

마산지회

-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역사기행"
- 날짜: 11월 19일~20일
- 장소: 갑오농민 전쟁전적지
- 문의: (0652) 231-6242

전주지회

- 어린이 역사기행
- "쌀 수난의 현장을 찾아서"
- 날짜: 11월 5일 오후 2시
- 장소: 군산
- 대상: 국민학교 1~6학년
- 문의: (0652) 231-6242

대구지부

- 날짜: 11월 11일 10시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 PET 강좌
- (* 셋째, 넷째 수요일 글쓰기 모임)
- 문의: (052) 781-3911

학부모가 볼만한 비디오

■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독: 짐 웨리던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피트 포스트루트웨이트
아일랜드 민족 해방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평범한 청년이 민족운동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건달 조차도 민족 해방이라는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 영국의 대 아일랜드 정책을 비판하는 영화에 영국 왕립연극학교 출신의 영화 배우들(다니엘 데이 루이스, 엠마톤슨)이 대거출연하여 이색적이다.

■ 제르미날

감독: 끌로드 베리
주연: 제라르 드 빠르디유, 미유미유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 에밀 졸라의 원작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나」나 「목로주점」보다 정작 프랑스인들에게는 더 널리 사랑 받고 있는 작품이 이 「제르미날」이다.
인터내셔널의 기운이 유럽을 감돌 무렵 어둠에 잠긴 탄광지대 몽수에 한 청년이 찾아 드는데.....
탄광 노동자들의 생존싸움과 파업중에도 파티를 즐기는 신흥 자본가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선을 이루어 낸다.

학부모를 위한 책

■ 사랑하는 내아이, 겨울같은 내아이

도서 출판 동인 / 로스텔벨 (역) 문선화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극진하게 사랑하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이의 욕구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훈련을 받지 않고 부모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에게 자녀 양육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가 볼만한 책

■ 동 시리즈 전 3권

도서 출판 사계절 / 올프 예를봉루트

언어표현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면 아이들은 세상이 온통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주변 소재를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한 독일 아동용 동화.
논리적인 추리나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이의 사고력,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줍니다.

학부모신문 구독신청

1년구독료: 일만원
신청 전화: (02) 675-9068
지 로: 7605806
채 신 부: 013185-0042323

건전비디오 대여

가 입 비: 일만원
대여기간: 일주일
대 여 료: 1개당 천원
문 의: 02-634-6508

자연환경을 지킵시다! -제생공책

- 자연은 나무를, 나무는 종이를, 종이는 문화를 그리고 문화는 사람을 만듭니다.

가격: 10권 2000원 / 문의: 634-4359

자연환경을 지킵시다! -천연세제

- 천연세 - 고무장갑없이 장시간 사용해도 피부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무독성 천연세제 (1,800원)
- 샘이랑 -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꾸는 전신 물비누 (4,800원)

〈심리·적성 검사〉

"나는 어떤 사람일까?"

- 일시: 홀수달 첫째 토요일 3시~7시 (학기중)
- 장소: YMCA 문래 청소년회관
- 대상: 중·고등학생, 일반
- 참가비: 20,000원
- 검사내용: 적성, 흥미, 인성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직업 선택 검사
- 검사해석: 검사일로부터 10일 이후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상담 해석
- 문의전화: 676-6114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가

한국 아동문학의 큰 맥을 잇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권해주십시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71권은 그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 생필아이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돌이는 한강박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해 왜 해야 하노 한 교실 어린이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식 · 동화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천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천학교육연구소
36. 민요기행 신정원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정

▶ 과학이야기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62. 끈질기게 물고 들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4. 악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원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인문이야기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68. 열쑈구 국악이야기 들어 보세 김태균
- ▶ 인문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권규
49. 신채호 김서정
- ▶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동물이야기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산나는 교실 윤태규
14. 비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말꼬마이 이상권
20. 허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진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홍, 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섬마을 아이들 신준형
32. 아이루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꺾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침지의 매추콩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풀썩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하느님이 우리 열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69. 느릅굴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도서출판 산하

121-012 서울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 각권 값 4,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